



긴 세월 속에서의 나의 행복

윤순자/대한간호협회 임상간호사회 사무국장

겨울의 닫힌 풍경에서 깨어나 모든 사물의 숨통이 트는 봄이 오면, 나는 내 인생의 봄이 — 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꿈을 자주 꾸곤 한다. 마을 밖, 신작로에 하늘을 찌를 듯한 미루나무와 뽕양고 길게 뻗은 신작로, 꽃샘바람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뭇가래 다니던 금강하류에 있는 세도(世道)별판, 이런 것들은 지금도 나에게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왜냐하면 유년 시절은 지금까지의 내 생(生)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었고 구심점이었기 때문이다.

그 시기는 6.25 동란 이후이어서, 미개한 짐참기 상태와 혼란, 무질서 빈곤의 상태를 같이 겪는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되돌아보면 39년 전! 참으로 긴 세월이었다.

그 때 간호학과 1학년이 입학하여 이화동산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아름다운 목련꽃과 소나무 숲에서의 은은한 냄새에 황홀했던 기억과 내가 수강했던 과목 중에 감명깊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생애”라는 기독교 문화 과목이었다.

“예수님의 수난과 십자가”의 대목에서는 절정을 이루어 강의하셨던 김옥길교수님과 학생이었던 나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경험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이렇게, 불혹의 나이 50세를 훨씬 넘긴 지금 20대의 꿈많은 시절에서부터 나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당시 나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모교병원에서 임상경험을 충분히 쌓고, 국책은행 의무실에서 산업장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경험하였다.

그후 서울시 간호사회에서 협회의 정책, 체제를

충분히 익힌 후 평생교육으로 대학원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간호대학에서 후진양성을 위하여 7년 동안 봉사하다가, 중소병원의 간호부장으로 3년간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력을 쌓은 후였기 때문에 13년의 역사를 가진 임상간호사회에서 내가 나아갈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첫째는 조직의 강화와 확장, 두 번째는 간호업 무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강좌, 세 번째는 각종 간호기록서적의 표준화, 네 번째는 각종 교육 기자재 제작, 다섯 번째는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 여섯 번째는 대 정부 정책 참여 및 모니터 활동 전개 이렇게 중장기 사업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난 해는 ‘간호수가 현실화’ 추진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거두어 48,0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쾌거를 부르기도 하였다.

유년기 때는 하루 해가 너무도 길었다. 청년기에는 그런대로 하루가 쓸만한 시간이 있었다. 하루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가서 몇 시간 책을 읽고 나와서도 기우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60세가 가까워 지니, 하루는커녕 1년도 쓸 시간이 없게 되었다.

한 해가 유년 시절의 하루만도 못하게 느껴지고 있으니 시간의 가속도가 붙어도 많이 붙어진 모양이다. 내가 탄 세월의 기차는 참으로 즐기치게 달리고 있다. 어느 곳이 종착역이 될 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다. 이제, 이 남은 짧은 기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항상 염두해두고 살아야겠다.

내가 탄 세월의 기차는 참으로 즐기치게 달리고 있다. 어느 곳이 종착역이 될지는 하나님만이 아실 일이다.